

#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동거하는 고부를 중심으로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ormation and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 With a Focus on the Cohabitation of a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수 조윤주\*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 Yoon-Joo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s of consciousness on the experiences of formation and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A qualitative study was designed in this articl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0 dyads of immigrant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s-in-law. Before the marriage, the mother-in-law's expectation about her daughter-in-law was not high, and the daughter-in-law held the same opinion of her mother-in-law. During the marriage process, the mother-in-law had difficulties in terms of physical, emotional, and material aspects. The daughter-in-law endured the wedding procedure by holding onto hope and anticipation for the future. After the marriage, the mother-in-law eventually became satisfied with her daught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grew to feel thankful for her new family members and expressed that she was living a happy life. Consequently, the essence of formation and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was "obtaining precious family members through the undergoing of trial and error."

---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 가족(multicultural family), 고부(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형성(formation), 적응(adjustment),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 I. 문제 제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이다. 1980년대 초반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하여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필두로 1990년대에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농촌 남성간의 결혼이 주축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 국제 결혼의 규모 자체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국적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해 혼인한 전체 부부 중 다문화 가족이 10.8%를 차지하였다는 Statistics(2011)의 조사와 함께 3년 연속 10%대를 상회하는 세대를 볼 때 이러한 혼인 양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형태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으로 통용되는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급격한 확산은 관련 연구 또한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

\* 주저자 · 교신저자 : 조윤주(E-mail : bju0501@naver.com)

첫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관계로 탐색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한 연구가 보고된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등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물러 심층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면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주로 하고 있으며 관련된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우자에 국한되는 정도이다. 결혼 후 일정 시기가 지난 경우 자녀로 확대되기도 하나 이들에외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관심이 있는 관계이더라도 양자(dyad)를 다루기보다는 표집의 편리성 때문에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

셋째, 연구 주제 역시 관계상의 만족도나 정신 건강 수준 등 이들의 생활상에 적응을 측정하는 변인 위주여서 현재의 결과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어떠한 이유나 원인에 의해 국제 결혼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결혼 전후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흔치 않다.

예로부터 부거제를 취하는 부계 사회에서의 혼인은 남편과 아내와의 결합인 동시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들이는 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시 시어머니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며 결혼 후에도 며느리의 적응이나 결혼 만족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인끼리의 고부 관계에서 이전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고 점차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고부가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다문화 가족은 이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결혼 후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음으로 나타나므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그만큼 한국인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상호작용 빈도가 늘어나고 공유하는 경험 역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접근을 이용하여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나 기존의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시어머니를 연구 대상에 포함할 것이며, 고부간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해 동거하는 고부를 동시에 면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 이후의 삶외에도 결혼 전의 과정부터 연구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혼인이라는 생애 사건에 대해 일련의 종합적인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경험하는 의미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들의 생활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선행 연구 고찰

### 1. 다문화 가족의 현황

다문화 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여기에는 국제 결혼에 따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이주민 노동자, 새터민 등이 포함된다. Statistics(2011)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엔 혼인한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10.8%)로 지난 2008년 11.2%를 기록한 이래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14.5%로 다문화 혼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대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33.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이 27.6%로 뒤이었는데, 캄보디아 국적 여성의 혼인이 2008년 1.8%에서 3년 만에 5.6%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부부의 연령은 남성이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9%에 달하여 다문화 혼인의 초혼 연령은 남성이 36.5세, 여성이 26.2세였다. 반면, 한국인끼리 결혼한 경우 남편이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는 전체의 3.2%에 불과하여 대조를 보였다.

다문화 부부의 74.0%는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첫째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부부가 결혼한 지 평균 3.4년만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그리고 임부가 되는 나이도 한국인 부부의 경우 30대 초반(47.0%)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다문화 가정은 20대 초반에 임부가 되는 비율이 31.6%로 제일 높았다. 지난 해 출생한 신생아 47만여명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2만여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4.3%에 이르러 아기 100명 중 4명 이상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특히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도 100명당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과 충남, 경북, 강원 등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에서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는 지난 2008년에는 1만2천430건이었으나 2009년 1만3천653건, 2010년에는 1만4천319건으로 해마다 천여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인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년 대비 7.1% 줄어든 것과는 반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 대비 다문화 가족의 이혼 비중도 2008년 10.7%에서 지난 해 12.3%로 늘어났다. 또한 다문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결혼 기간이 평균 4.7년에 불과하고, 5년안에 이혼하는 비중이 60.7%였으나, 이혼한 한국인 부부는 평균 14.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 이혼을 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다문화 부부의 경우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혼인이 지속되기

더욱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다문화 가족의 형성

다문화 가족내 배우자 선택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관점 중의 하나로 사회교환론이 있다. Waller(1937)는 남녀 교제를 이성적이고 계산된 행위로 간주하고 이것이 확대된 배우자 선택은 결혼 시장에서 개인이 지닌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자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Lee and Cho, 1994, 재인용). 예를 들어 Kim(2007)의 연구를 사회교환론에 적용한다면 국제 결혼시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남성의 직업, 재산, 거주지는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져 연령, 외모, 성격, 가족 상황 등과 같은 개인적인 단점은 희석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가난한 나라의 여성은 개인적인 측면인 연령, 외모, 성격 등에서 비교 우위가 있으며 학력이나 직업, 가족 관계 등의 문화적인 의미는 신랄측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 소개 업체나 종교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 중 실제와 다른 부분으로 남편은 아내의 성격이, 아내는 남편의 직업이 가장 많았다는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7)의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며 결혼 당사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형성에 관해 농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결혼 이민자 여성과 이들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면접한 Kim(2007)은 결혼이 남편의 경우 한국 국민이라는 위치와 경제력 對 아내의 이주를 통한 혼입과 가사 노동 수행이 교환되는 암묵적인 계약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필리핀 여성들은 가까운 사람을 여윈 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거나,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유인이 되었다. 한국인 남성은 결혼에 대해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국제 결혼을 신청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혼인 7건 중 4건이 특정 종교(통일교)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다른 다문화 가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취약함이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미 결혼하여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출국 준비중인 필리핀 신부들을 심층 면접한 연구(Kim, 2009)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다양한 국적의 남성들과 국제 결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사례 중 4건은 친지나 결혼 알선 업체의 중개로, 나머지 3건은 여행이나 업무 때문에 필리핀에 온 한국인 남성을 만나거나 인터넷 교제 사이트에서 만난 경우였다.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해 다양한 경로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필리핀 여성은 다수가 영어권

국가로 이주해 가고 이들의 교육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본이나, 대만,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은 미혼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면접한 Chae and Hong(2007)은 대상자 20명 중 17명이 결혼 소개 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났으며 국제 결혼하게 된 배경 및 동기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적당한 취직 자리가 없어 혼기를 놓쳐 주변의 권유와 부모님의 성화에 의해서였다. 특히 베트남 여성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력 부족과 결혼 적령기 여성의 부족, 한국 여성과 유사한 외모, 결혼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결혼 비용으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중개 업체에 지불하였고 처가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주기도 하였다.

Lee and Lee(2009)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고부 관계와 수발 의식에 관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며느리 8명과 시어머니 2명을 면접하였다. 결과,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정보는 단지 대중 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느낀 처음의 감정은 무서움이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한국 여성들은 조건이 많아서 자신의 아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국제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쓸쓸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결혼 후 시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결정에 별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안 것도 두 사례에 불과했다. 이들의 연령이 어릴 뿐 아니라 한국어를 모르고 정보가 없으므로 시부모들은 '아이'처럼 대하였으나 한국어 습득 후에는 본격적인 며느리로서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대상면에서 배우자의 국적이 특정 국가 출신으로 한정되거나 결혼의 통로가 특수하며 국제 결혼의 형성 초기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적과 보편적인 결혼 통로를 통한 사례를 포함할 것이며, 생활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 이후의 결과외에도 결혼이 추진되고 성사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 3. 다문화 가족의 적응

우선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남녀 국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Jeong & Han, 2009), 결혼 이주를 하면서 기대했던 생활 수준 향상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부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결혼 이민자는 가족 생활 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 남성 결혼 이민자의 심리적 적응 수준은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다문화 가족내 시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Goo, 2007)에서 시부모의 편견과 이해 부족의 대표적인 예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생각으로 며느리의 모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단지 텔레비전을 통해 들은 단편적인 지식이 대부분이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배울 필요가 없고 무시해오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들 관계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의지할 곳 없이 먼 타국으로 시집 온 며느리가 안쓰럽고 부모가 보기에 '좀 모자란'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외국인 며느리와 잘 살기를 바라며 며느리를 보살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Hong and Chae(2008)는 대체로 시댁 식구들이 협조적이지만 시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밥상을 내던지거나 동서의 시집살이도 있어 타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의 배려와 관심임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며느리가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얻는 이점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Lee and Lee(200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여 자녀 출생 후 언어와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Chae and Hong(2007)은 문화적인 갈등, 언어 장애, 며느리의 외출과 친정 방문 제한, 동서의 시집살이 등이 가정 생활의 주요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관련된 이들이 좀 더 늘어났을 뿐 고부 관계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다. 이에 고부 관계를 주 관심사로 한 연구들이 점차 보고되는데 Yoon and Lee(2010)는 농촌 지역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본 경험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6개로 범주화하였는데 '애달픈 마음으로 아들 결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딸처럼 품고 살려고 함', '내 집 사람처럼 만들려고 함', '복덩이 며느리와 함께 삼', '보이지 않게 울가미 감기', '그래도 괜찮음' 등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국제 결혼에 주도적이었으며 농촌 사회의 특성인 정교 연민의 태도를 가지며 시어머니 우위형의 관계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 주된 매개체로 역할하였다.

이외에 서울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Jeong & Lee, 2010)에서 도출된 7개의 최종 주제는 '돌과구로 선택한 외국 처녀와의 결혼', '아들 결혼으로 평안을 되찾음',

'외국인 며느리와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함', '어려움을 혼자서 참아냄', '물심양면으로 도와 줌', '며느리가 점점 마음에 듦', 그리고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 연구는 따로 사는 고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하였다면, 시부모를 설문 조사한 연구도 있다(Jeong, Park, & Lee, 2010). 연구 결과,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와 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시부모의 건강 상태, 며느리와 의사소통 정도가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시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효과적일수록,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였다.

상기한 일부의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내 고부 관계를 보다 중점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였으나 시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외국인 며느리와 동거와 별거 상태가 뒤섞인 것이었다. 따라서 정확하고 균형잡힌 고부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거하는 고부만으로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준(criterion) 표집에 의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고부간 생생한 생활상의 경험(lived experiences)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결혼 후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한국어 구사와 이해 능력자로 제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관계자를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소개받았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눈덩이 표집을 이용하여 참여자를 확대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 10명과 이들과 동거하는 며느리 10명으로 총 20명이었다. 본격적인 면접 이전 섭외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외에는 수집한 자료가 이용되지 않으며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실제 면접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면접 중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대화 내용은 녹음될 것임을 알려 주었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두시간 정도였으며 종료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그리고 면접 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반영하여 자택이나 대학교내 상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Table 1>에 제시하였는데 시어머니의 연령은 50대 1명, 60대 4명, 70대 5명으로 평균 68.0세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명 이어서 이 중 무학이 4명, 초등학교 중퇴가 3명을 차지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Background

No (daughter-in-law's nationality)	Age	Education level	Income /month (manwon)	Religion	Origin family of daughter-in-law	Current cohabitation family*	Marriage year	Marriage channel	Marriage cost (manwon)
daughter-in-law#1 (Cambodia)	26	middle	200	-	· parents · 8siblings	· husband · son · dil**	2006	agency	1,000
mother-in-law#1	63	middle		Buddhism		· single daughter · 2grandsons			
daughter-in-law#2 (Vietnam)	24	high dropout	114	Protestantism	· parents · 4siblings	· husband · son · dil	2005	agency	2,000
mother-in-law#2	62	middle		Protestantism		· 1grandson			
daughter-in-law#3 (China)	28	middle	200	-	· mother · 2siblings	· husband · son · dil	2006	friend	500
mother-in-law#3	57	ineducation		Others		· 1granddau- ghter			
daughter-in-law#4 (China)	35	high	200	Buddhism	· parents · 2siblings	· husband · son · dil	2007	acquaint- ance	1,000
mother-in-law#4	62	ineducation		Protestantism		· 1granddau- ghter			
daughter-in-law#5 (Vietnam)	26	high	2-300	Buddhism	· parents · 3siblings	· husband · single son · second son · dil	2006	agency	1,000
mother-in-law#5	71	ineducation		-		· 1grandson · 1granddau- ghter			
daughter-in-law#6 (Vietnam)	23	high	150	-	· parents · grandmo-ther · 2siblings	· husband · son · dil	2006	agency	1,000
mother-in-law#6	76	elementary dropout		Buddhism		· 2grandsons			
daughter-in-law#7 (China)	27	high	100	-	· parents · 3siblings	· husband · son · dil	2009	agency	1,000
mother-in-law#7	65	ineducation		Buddhism		· 1grandson			
daughter-in-law#8 (Vietnam)	22	high dropout	not regular	Catholicism	· parents · 4siblings	· son · dil	2007	agency	1,300
mother-in-law#8	77	elementary dropout		Buddhism		· 1grandson			
daughter-in-law#9 (Cambodia)	24	high dropout	200	Buddhism	· parents · 5siblings	· son · dil	2008	agency	1,100
mother-in-law#9	71	high		Catholicism		· 1granddau- ghter			
daughter-in-law#10 (Vietnam)	28	middle	1-150	Catholicism	· mother · 2siblings	· son · dil	2005	friend	1,500
mother-in-law#10	76	elementary dropout		Catholicism		· 2granddau- ghters			

\* 현재 동거 가족은 시어머니를 기준으로 작성함.

\*\* dil은 daughter-in-law의 약자임.

나머지는 중학교 졸업(2명), 고등학교 졸업(1명) 순이었다. 현재 직업은 아파트 청소를 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업 주부였으며, 대부분 종교가 있어 불교 4명, 천주교와 개신교 각각 2명, 그리고 무교와 기타가 각 1명씩이었다. 며느리의 연령은 평균 26.5세로 22세부터 35세까지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중퇴 3명, 중학교 졸업 3명이었다. 현재 직업은 전업 주부가 9명이었고 나머지 1명만이 화장품 용기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달 가량 경과하였다. 종교로는 무교(4명), 불교(3명), 천주교(2명), 개신교(1명)의 순이었으며,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아 5명, 중국 3명, 캄보디아 2명이었다. 며느리 원가족은 모자 가족이 두 가족이었고 나머지는 양부모가 생존해 있었으며 형제는 최소 2명 이상이었다.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였으며, 현재 거주지는 서울시 8명, 경기도 2명으로 모두 수도권이었다. 같이 사는 가족은 모두 3세대 확대 가족의 형태였다. 결혼한 경로는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아 7건이었고 친구 및 지인의 소개는 3건이었다. 결혼에 사용된 비용은 대략 1천만원을 다소 상회하였고 소요 기간은 1주일에서 열흘 정도였다. 또한 결혼한 연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조사되었다.

## 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외국인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와 이들의 며느리를 현상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현상은 개인의 주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속에서 지각되는 체험을 의미한다. 이는 공통의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의 의식과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여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경험이 결혼 전과 결혼을 진행하면서,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심층 면접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국제 결혼 전 예비시어머니와 예비며느리의 경험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국제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경험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3> 국제 결혼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경험은 어떠한가?

## 3. 자료 분석

면접하여 녹음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을 이용하였는데 전사된 원자료를 수차례 다독하여 유의미한

단어나 문장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출된 의미 중 공통된 의미들을 의미의 재진술로 구성한 후 범주화하였고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 중 경험한 것에 대해 조직적 기술과 이것의 맥락에 대한 구조적 기술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험의 본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며느리는 한국어로 면접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통·번역 절차는 없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부적인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하여 연구 결과와 비교, 예외적인 결과들을 통해 초기의 결과를 재수정하였다. 또한 결과에 대해 구성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구성원 확인(member check)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으며, 다원화(triangulation)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과 자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적응 과정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 1. 결혼 전 경험

#### 1) 시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의 선택

국제 결혼을 하게 된 배경으로 본 연구 참여자의 아들이자 남편인 한국인 남성이 일반적으로 혼인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 학벌, 직장, 경제적 여유, 외모 등이 상대 여성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혼기를 놓친 경우가 다수였다. 따라서 같은 한국 여성과의 결혼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대부분 아들이 먼저 국제 결혼을 제안하였지만, 일부는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을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생활이 어려니까 한국 애들은 일단 남편 직장 좋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 며느리는 바라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한국 애들이 오면은 지금은 이렇게 와서 살지 몰라도 살면서 이케 환경이 어려우면 이혼할 확률이 많으니까 내가 엄마하고 아버지를 이해해 주면 베트남 아가씨한테 장가를 가서 내가 같이 살면은 다소 가정이 이제 화합이 되지 않겠냐. 엄마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버지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반대를 하고 그래도 아들이 자기 의지대로 혼자 휴가를 내서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하고 왔어요(시모 #2).

식구들 다 반대했지, 처음에는. 엄마 한국 사람하고

Table 2. Formation and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rocess	Categorization	Restatements of meaning
before marriage experience	· mother-in-law(m-i-l); second best choice	· unattractive conditions of son · son's advocacy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and mother's active suggestion · precedent case of successful international marriage · low expectancy level about m-i-l
	· daughter-in-law(d-i-l); exit to escape from poverty	· economic poverty of origin family · envying neighbor's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 thinking Korea as a rich country through TV soap opera · no expectation about d-i-l
during marriage experience	· m-i-l; not easy process in material and mental aspects	· loss of energy, money, etc. · won't repeat the same procedure · mixed response of neighbor
	· d-i-l; enduring difficulties through anticipation and hope for the future	· passive partner selection procedure · grief about separation with origin family · anticipation to improve a previous standard of living · being envied by neighbor
after marriage experience	· m-i-l; thankful mind to d-i-l but needing more efforts	· played a role as provider, guide, advocate of d-i-l · endless string of troubles · teaching d-i-l whenever problems happened · high satisfaction comparison to former expectation · being generous to foreigner and managing the marriage agent strictly
	· d-i-l; satisfying the Korea life comparatively under some difficulties	· experiencing cultural differences in food, custom, etc. · accepting m-i-l's opinion and teaching absolutely · satisfying family relationship in spite of not being rich · necessity of the reliable marriage agent and concern about her child's being discriminated

해야지 어떻게 외국 여자를 데려다가 2세도 보고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서 한국에 올 줄은 몰랐지 그 때만 해도... 처음에는 반대하고 아이고 야단이었는데, 내가 우기고 지금 외국인 며느리를 택해 갖고 한 거지(시모 #9).

이 때 시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무조건 따르거나, 선택에 반대는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국제 결혼을 주도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외국인 며느리를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된 것은 주위에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저함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처지가 그다지 좋지 않으므로 결혼 전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아 '그냥 와서 잘 살아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또는 살림을 알뜰하고 정결하게 하고 남편 공양을 잘 하기를 희망하였다.

남의 일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한테 딱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시모 #4).

기대는 없어요. 뭐 기대는... 기대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없어도 내가 떠나도 쯤 한국 며느리로서 야무지게 아들, 딸 잘 가르치고 키우고, 남편하고 사이좋고, 그게 이제 기대지(시모 #1).

그냥 고등학교 정도 하고 여기 와서 그냥 남편한테 내조 잘 하고, 심성이 좀 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고거밖에 안 바랬어요. 내가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시모 #2).

2) 며느리; 가난으로부터의 탈출구

외국인 여성이 국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본국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자국의 남성과 결혼하기를 희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국가내에서도 본 연구 참여자의 원가족들은 생활이 더욱 궁핍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싱가포르 등으로 시집가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결혼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삼촌 딸이 싱가포르에 갔거든요.

시집갔는데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언니 그렇게 잘 살면 나도 나가겠다고. 언니 나도 나가서 한번 외국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가서 여기 오게 됐죠. 제 생각에는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시집이 잘 해 주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적응해서 살고 시어머니 나쁘면은 도망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많이 도망가요(며느리 #8).

이들은 결혼 전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는 등 정보를 얻었는데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무섭고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내용이 많아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시어머니는 덜 무섭고 자신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저 항상 텔레비전보고 드라마 보고 좋아요. 잘 살게 나와요. 뉴스에도 나와요. 대통령도 보고. 생각 진짜 잘해요(며느리 #9).

베트남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베트남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무서웠어요. 한국에 가면 시부모님 어려우면 어떻게 사나. 모 그런 생각은 많이 드는데 여기 막상 오니까. 처음에 어머님 만났을 때도 좀 무서웠어요. 인상이 좀 착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웠지만 생활하다 보니깐 어머님 너무 좋아요(며느리 #8).

## 2. 결혼 중 진행 경험

### 1) 시모;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

이들은 대부분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결혼하였고(7건) 지인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도 3건이었다. 여기에 사용된 비용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으로 경제적 상황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상기한 비용은 결코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해서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가까지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었고 각종 서류 절차 등을 마치고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2,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다. 며느리의 국적은 중국 또는 동남아였는데 동구권의 백인 여성은 한국인 남편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 배우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한다.

천만원을 결혼 소개소에 주고, 주로 인제 며느리 집에 얼마 주고, 결혼식 해 주고, 그 비용을 천만원에서 다 이렇게. 그거 얼마 안 혀. 일주일이면 땡이요. 그 안에.

거기 가서 3박4일... 러시아 여자. 러시아 여자도 보고 모든 것 보니까, 되게 보면 후진국일수록 그 남편에 대해서 직업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오고, 그니까 조금 그래도 러시아도 잘 살긴 잘 살잖아요. 그런 데는 조건부가 있더라구요. 나가서 살아야 된다. 또 뭐 얼마 정도는 되어 된다(시모 #1).

돈 한 천만원. 소개소 들어가요. 소개소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본집에 주는 게 안 주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여 우리 애기 친정에... 우리 아들 먼저 보냈지요. 먼저 보냈지만 가서 알고 보니까 결혼하러 오라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알았으면 다 갔었지. 먼저 가서 결혼하고(시모 #7).

시어머니가 직접 동남아 현지로 간 경우도 2건이었는데 기후상 덥고 본국내에서도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편으로 이동하면서 고령의 시어머니들은 신체적으로 피곤함을 호소하였다. 한국에 있었던 한 시어머니는 새 식구를 들인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 왼쪽에 마비가 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식을 올린 경우가 다수여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웠고 여러 측면에서 힘이 들어 한번 이상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다.

소개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그 분들과 같이 여행삼아서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거기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고 왔거든. 한 열흘 가까이 있다가. 거기서 결혼식도 시키고 거기 식으로. 신혼여행은 3박4일 다니는데도 같이 호텔에 같이 있으면서 잘 하고 그러고 왔지. 신랑이 재를 골른 거지, 나도 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해 가지고 와서. 여 와서도 결혼식도 다시 하고. 응 해야지. 또 친척 분들, 여러 사람들 다 해서 예식장에 가서 다 했지, 한국식으로도... 이것도 한번 아들 한번이지 두번은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과정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아들 둘도 해 온 사람도 있어(시모 #9).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찬성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등의 극단적인 양상이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 구성원이나 친인척의 반대에는 적잖이 마음 상하기도 하고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가족이나 친지의 반대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 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반대를 많이 했죠. 하지 말라고. 반대 많이 했어요. 애 낳으면 입이 커무마하고, 피부가 커무커무하고. 베트남 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주 뭐 정말 막 안 좋게 보잖아요. 일단은... 어떤 편견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 보니까. 근데 큰 일 같은 집안의 대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를 동행할 하지를 못 해요. 개 듣는데는 말을 안 하지. 그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가급적 부주만 띄어 보내고 나타나는 않지. 가면은 일단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 비비 돌게 되고 그리고 또 일단 베트남이라는 그 때문에 또 그렇고(시모 #2).

2) 며느리;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어려움을 견뎌낸 외국인 여성은 결혼 소개 업체의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찾아가거나 주변의 소개를 받아 연결되기도 하였다. 소개 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20대 전후의 여성들이 적게는 15명에서 60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면접한 후 한국인 남성의 선택을 받으면 혼인이 결정되는 식이었다. 업체에 제공하는 사례비는 신부 소개와 결혼식 비용, 그리고 각종 서류 절차 등에 이용되었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신부의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사례비와 별도로 신부 가족에게 주는 비용을 신랑측에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여러 과정을 업체에서 대행하여 외국인 여성들의 수고를 덜어 주기는 하였으나 일부 외국인 여성은 반복되는 절차가 번거로웠음을 언급하였다. 절차 완료 후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사된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냥 세명 한방에 있어. 사무실에 여성 캄보디아 여성들이 열다섯명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방에 있어요. 그냥 캄보디아 여성을 세명 한방에 들어가. 계속 들어가요. 저 신랑 저 딱 보고. 결정했어요(며느리 #9).

첫 번째 만날 때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저도 나오고 그 때는 6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만 골랐어요(며느리 #8).

신랑 왔잖아요. 만나고, 밖에 기다리고... 어떤 사람인지 밖에 가서 적어오는 거야. (웃음) 그 자리에서 3명 남는거야. 여자를 골라요. 거기서. 몇 초 동안 계속 골라(며느리 #2).

서류도 엄청 복잡해요. 그냥 뭐 공증 인정. 서류 많아요. 쓰는 것도 많아요(웃음). 결혼 서류... 음 똑같... 비슷해요.

그 서류하고 인터넷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또 다시 똑같은 준비, 왜 그러는지 몰라(며느리 #4).

우리 결혼식 끝나고 우리 남편 일주일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 가고 나는 안 왔어요. 나 혼자 중국 있었어(며느리 #7).

이들이 국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 멀리 타국으로 시집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나 한 참여자는 어머니가 먼저 권유한 경우도 있었다. 부모가 반대한 이유 중 가장 컸던 것은 물리적으로 원거리인 것 외에도 신랑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였는데 부부의 연령차가 최대 19세까지 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은 부러워하여 축하를 받은 일이 많았다.

멀고 그러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보냐고, 비행기 타야 하고 돈도 없고 어떻게 보냐고, 아빠가 저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해서. 결혼식할 때 눈물 많이 났어요. 아빠는 당장 옷 벗고 집에 가자고. 저만 마음 결정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며느리 #8).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너 공부 못 시켜 주니까. 저는 이제 한국 시집갈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한국 시집가요, 텔레비전 보니까 한국 문화도 나오고 우리 엄마는 한번 시집 가 볼까. 한번 가 볼래? 아! 엄마 나 안 가요. 싸우면서 나 안 갈래(며느리 #2).

### 3. 결혼 후 경험

1) 시모; 더 다듬어야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내 가족 결혼 후 시어머니는 일방적인 도움의 제공자였다. 며느리가 본국에서 사전에 간단한 한국어를 교육받고 온 경우도 있었지만 별 다른 준비없이 몸만 온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동남아 출신의 며느리들은 이들이 공항에 입국하면서부터 겨울옷과 신을 사 주어야 했고 집에 와서도 속옷이나 양말 등 사소한 것조차도 다 준비해 주어야 했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식사 준비는 시어머니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 입맛에 한국 음식이 맞지 않았지만 고기 반찬만은 잘 먹거나 동남아의 열대 과일을 먹고 싶어 할 때도 챙겨 주어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식비 증가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들은 샌들 하나에다가 여기 신랑이 가면은 옷을 한 벌에다가 여기 오는 끌고 오는 가방에다가 핸드폰을 사

주고 오더라고. 그러면은 그것만 맨발에다가 가방 하나만 샌들 신고 다다다다 끌고 와, 추울 때. 거기는 더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김포공항에 따뜻한 옷을 가지고 가서 입혀 가지고 오면은 그 때부터는 다 해 입혀야 돼. 나도 애 데려오고서는 내 양말도 한켠레 안 사 신었다고. 그거 맨날 사다 다 대지 양말만 사다 줘?(시모 #8)

된장은 먹으라 해도 안 먹어. 두부 놓고 지지면 두부만 먹고 고기도 잘 먹어. 고기를 참 잘 먹네. 고기를 그렇게 잘 먹어(시모 #6).

며느리가 외출을 할 때도 항상 누군가 동행해야 했으며 이 역할을 주로 시어머니가 담당하였다. 시장에서 장을 본다거나 한국어 교육 받으러 갈 때 뿐 아니라 특히 결혼과 동시에 또는 직후 며느리가 임신하여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갈 때 보호자로서 같이 다녀야 했다. 이것이 연로한 시어머니에게는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같이 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물건 사는 것도 보여주 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 볼 일도 같이 하고 그냥 데리고 다녀요. 응. 행동으로 보여 줘야겠다(시모 #4).

또한 언어상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존댓말을 잘 하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매번 교정해 줘야 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차이는 생활 전반에서 드러나 옷차림이나 손님을 맞을 때, 손님으로 방문할 때, 경조사 등 매우 사소한 부분에 서조차 비밀비재하였다.

“혀는 돌려라.” ‘쌀’ 하면은 리을 받침 잘 못하잖아요. 그런 받침을 “혀를 굴려라. ‘이웅’을 돌려라. 이렇게 돌려라. 돌려라. ‘디근’도 혀를 굽혀라. 굽혀라.”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시켰어요(시모 #2).

양말을 안 신을라고 그래, 갑갑하다고. 그렇게 뜨거웠나 봐. 시아주버니가 성(형)이여 성. 그러지 말고 덧버선을 사줬어, 저번 때. 덧버선 신고 그러고 추석 때도 그렇게 맨발로 하면 촌스럽고 한국은 못 써(시모 #6).

대개 신부의 연령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어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므로 시어머니들은 함께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사고가 강하였다. 이 때문에 결혼 후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며느리의 의견에 상관없이 당연히 같이 사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며느리는 그

대로 따르는 식이었다.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는 하였지만 신부가 선택할 여지는 없었고 남편이 장남이고 아들이 한명이므로 같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떤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귀국 후에 알게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분가시킬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동거를 결정한 측면도 있었다.

맘에 들고, 이쁘고, 근데 이제 껌테기 다르고 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는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장손의 며느리 아니에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잘 다뤄서 하면 니가 몇 년 지나면 인제 잘 하겠지(시모 #1).

같이 살아야지 같이 안 살고 둘이면 산다고 치면 그제 내내 그러면 그럴꺼 아니야. 거게 문제겠더라고 같이 살아야지(시모 #8).

돈이 없으니까. 으호호. 방을 얻어 줄 돈이 없어서(시모 #2).

시어머니는 며느리이기보다는 자신의 막내딸처럼 여겨 가르치고 과정상에 혹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일이 다수였다. 그리고 이견이 생겼을 때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한 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며느리는 고집이 껴다는 것으로 단정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들이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중재하는 일이 많았는데 무조건 아들을 먼저 나무라면서 며느리의 옹호자 내지 대변자로서 역할하였다.

아직까지는 돈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림을 못 매겨요. 살림을... 가르쳐도 안 되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행주를 딱 해서 써라 해도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할 때 내동 얘기해도 안 되잖아. 그 때 즈그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시모 #1).

며느리를 나무라지를 았고 내 아들을 나무래요. 그렇게 살아요(시모 #2).

시어머니들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뿐 더러 먼 타국에서 와서 조건이 좋지 않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강하였다. 며느리가 순종적이고 싹싹하여 만족해 하는 시어머니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설거지나 빨래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게으

르고 한국 음식을 잘 안 먹는 등이 그 예이다.

나는 그런 게 없대. 너무도 고맙고 좋대. 우리 자녀를 줄 수 있는갑다 싶고, 아이고 우리 아들도 결혼할 때가 있던갑다 싶고 마음이 좋아 내가. 그 때 마음이 제일 좋더라고 기뻐(시모 #10).

우리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었으면 음... 그래도 며느리가 와서 내 집 사람 되가지고 그래도 손자까지 낳아 주고, 그래도 안 가고 나이 먹은 총각보단 내가 훨씬 낫지. 그거야. 그치. 훨씬 낫다고 봐야지... 지 고집대로. “너 설거지 이렇게 이렇게 딱 말려서 해라.” 그거 전혀 안 해. 그런데 보면 더운 나라 사람들이 게을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해요. 또 빨래 같은 것도 한국 사람은 하얀 거는 팍팍팍 삶아서 하얗게 해야 하얀 맛이 나면 좋잖아. 근데 그 나라는 너무 더우니까 그냥 꾸적 꾸적 건져서 삶는 것이 없어요. 꾸적꾸적 건져서 말르면 입는 거야. 그것도 뒤집어진 채로. 그것 다 가르켜야 한다고 생각해 봐(시모 #1).

참여자의 또 다른 한국인 며느리와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외국인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유로는 한국인 며느리가 배운 며느리일 때는 다소 불편하지만 외국인 며느리는 나이도 훨씬 어린테다 말을 잘 들어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외국인 여성이나 먼저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는 자신이 데리고 살면서 잘 가르쳤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대학교 나왔다고 아주 깡쟁이에요. 일은 이이(외국인 며느리)가 좀 잘 하고, 공부 대학교 나왔다고 좀 저거 하나까... 웬만하면 많이 배운 여자는 원치 않다는 거지(시모 #5).

지금 현재로는 더 낫죠. 옛날 애들은 처음에는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여자보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며느리들이 누가 그렇게 신랑한테 잘 하고 며느리한테 잘 해요. 아주 신랑한테 잘 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늦게 좀 들어오든 언제오든 거기 문 닫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는지 쫓아 나가서 꼭 인사하고 아침에 꼭 쫓아 나가서 인사하고 누가 그렇게 해(시모 #8).

평소에는 뭐 모르니까 좋다 나쁘다 하질 않았는데, 데리고 살아보니까 데려다가 잘만 길르면은 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도 않고 괜찮잖아요. 다 배운 사람들도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시모 #8).

시어머니들은 점차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어려운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호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결혼 소개업체의 공신력에 대해서도 염려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이용한 대행 기관은 비교적 별 문제가 없는 곳이어서 금전적인 부담 외에 이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이는 당초 지인의 소개로 업체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 기관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지불하는 수고비나 결혼 비용들이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배우자 선정부터 신부가 한국으로 오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업체에게 일임하여 진행하므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기도 하였다.

애가 오는 날서부터 굉장히 충성하더라요. 충성하더라고. 왜냐. 그 국가가 가난하고 가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 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좀 잘 살고, 베트남에 엄마를 쫓 도와 줄까 싶어서 왔잖아요. 뭐 돈이 있어 연애를 해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참 이렇게 가정을, 친정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굉장히 불쌍했어(시모 #2).

정보회사 같은데서도 정부에서 그런 걸 다 밝혀갖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힘든 사람이 많아. 잘 못 되가지고 힘든 사람이.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잘 하는데서 했지만 제대로 해서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거 봐. 소개도 아무나 해 가지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해 가지고 신랑들이 폭력쓰고 죽고 온 사람도 많잖아. 캄보디아에서도 중지 당했어. 두 번이나 한국이랑 하지 말라고 국왕이 못 하게 컷트시켜가지고 여기 사장도 못 들어 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풀어줬다나.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것도 회사도 유령회사 같은 게 없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고생 안 하고 와서 서로 살았으면 좋겠어(시모 #9).

2) 며느리; 어려움이 있지만 비교적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함  
외국인 며느리가 결혼 후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 역시 음식, 언어 등 문화적 차이였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아침을 잘 먹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꼭 밥을 먹어야 하고, 한국

어 발음이 어려운데 존댓말까지 있어 한국어 사용에 많은 곤란함이 있었다. 문화적 차이외에 시어머니와 세대 차이도 있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골라 주는 옷이나 신을 사야 하거나 머리 모양을 해야 할 때 등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시부모 앞에서 남편과 애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불편함도 느꼈다.

베트남은 잠옷을 입으면 그냥 밖에 나가면 괜찮은데 한국은 집안에서만 입어야 되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한국은 진짜 인사 많이 해요. 근데 한국은 만나면 또 인사해야 되고 인사 많이 하는 게 불편하고. 음식도 좀 다르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처음에는 일년 동안 음식 못 먹었어요(며느리 #2).

언어나 문화이나 여기 풍습이나 다 어려웠죠. 다 다르잖아요. 음식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두계절만 있어요. 북쪽에서는 여기처럼 사계절이 있지만 남쪽에서는 두계절만 있어요. 우기와 건기예요(며느리 #8).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그게 켈 무서웠어요.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은 문화 진짜 이상해요. 제사는 여러 가지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하고 과일도 생선도 여러 가지 하고. 제가 어떻게 이거 할 지 몰랐어요(며느리 #10).

며느리들은 자신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고 알려 주는 대로 따랐으며, 한국에 온 이상 한국의 방식에 맞추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가끔 불만이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참았는데 한 참여자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화를 삭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편도 어머니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충고하였다.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서툴러 맛이 없거나 다른 집안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더라고 크게 혼란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버스 탄데서 그 버스 오면, 타면 다시 가니까(웃음) 한번 했어요. 화나면, 밖에서 화나면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캄보디아 가고 싶으면 내가 보내 줄게.' 근데 얘기는 안 되구, 저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도 시간 많이 안 보내 줘요. 얘기 때문에 많이 안 보내 줘요(며느리 #1).

제가 잘 못 할 때에도 야단하지 않고, 잘 못 했다고 얘기하고 고쳐주는 거, 아이거 괜찮다 고치면 된다 하시

고 그리고 밥은 호호호 밥은 할 때 닳잖아요? 그럼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 그래요. 딴 사람은 그러면 야단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적 없어요. 항상 가르쳐 주고 부부 싸움 있잖아요, 싸울 때는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해요. 어머니 오늘 오빠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싸웠어요. 어머님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며느리 #8).

결혼 전에는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지만 예상보다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앞으로 계속 같이 살기를 희망하였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어 조력자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비롯하여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삶의 행복감을 느꼈다. 단,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생활이 다소 어렵기는 했으나 여기에 크게 불만을 갖기보다는 살림을 절약하거나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폐지 수집을 돕는 등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들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며느리 #2).

주변에 국제 결혼한 지인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거나 불행한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본인은 성실하고 착한 배우자와 우호적인 시부모를 만난 것에 감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정이 어려운 상황일 때 송금해 주는 등 수시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컸으며 이를 보답하기 위해 시부모와 남편에게 더 잘하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돈이 많지 않아도 제가 행복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불행도 있어요... 제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남편이 좀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아요. 아기 세 명있는데 이혼하고 싶어 해요. 가끔 때려서(며느리 #5).

처음에 갔는데 오빠가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잘 웃고 아빠한테도 술 같이 드시고 동네 사람들도 앉아서 술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빠가 최고. 집을 다시 지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은행에서 조금 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일도 하고 오빠도 조금 보태서 그 은행에서 대주는 거는 다 갚고. 이제는 집이 잘 지었어요. 집이 예쁘게 지었어요(며느리 #8).

며느리들도 자신이 이용한 결혼 중개 업체는 대개 양호한 곳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 결혼 후 현지 과일을 구해 주는 등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업체 관계자도 있었다. 하지

만 일부 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배우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단시간 내에 수십명의 여성 중 선택받는 등의 이러한 소개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인 차별과 함께 자신의 자녀도 동일한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시어머니가 본인 대신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 국제 결혼 사장님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갔다 와서 항상 망고이나 뭐 캄보디아 음식이나 다 구해 주셨어요. 중개소 사장님이랑 아직도 연락하고(며느리 #9).

다 소개로 만나서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해서. 이혼... (하지만) 전 남편하고 이렇게 좋아요(며느리 #2).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여기 멀리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들이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는 나가면 안 된대요. 집에만 있어야 한대요. 나가면 도망갈까 봐.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딴 사람도 만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야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안 그러면 좋겠어요... 뉴스에서. 신랑이 부인 죽인 거.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놀랍지만 제 신랑은 안 그러니까. 그래도 걱정 돼요. 같은 베트남 사람들이니까 불쌍하죠(며느리 #8).

근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결혼 해라. 잘 살 건 잘 못 살 건 부모님 옆에서 근데 저 같으면 떨잖아.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아니 나도 가고 싶은데, (언니가) 외국 나갈 계획 있어요. '절대 가지 마라, 내 말 믿어.' 멀리 사는 게 근데 만나기가 힘들어(며느리 #1).

국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살면서 자기 운명이 따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국제 결혼은 중매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만 하고(며느리 #2).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 엄마 아니어서 다른 애들이 구박하고 그럴까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린이집에) 애기 보내는 거 시어머니가 데려가는 거죠. 그럼 좀 나아(며느리 #1).

## V.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가족내 주요 관계 중의 하나인 고부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적응 과정에 대해 심층 면접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전 경험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결혼 경사(marital gradient)'의 개념으로 설명가능하다(Yoo & Jeong, 2007). 결혼에 있어 남고여저의 현상이 일반적이나 국제 결혼을 하는 남성들은 국내에서 자신의 조건에 적절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 국외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된다. 자신보다 한 등급 낮은 즉,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출신의 여성을 만난다. 이는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단지 국적이 다를 뿐 자신의 여건보다 상위의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대부분이 본국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한다는 '배출-흡입 요인'이 적용될 수 있다(Kim, 2009). 만성적인 가난과 실업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 이론에서 주장하는 상대적 빈곤 역시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도시 거주자나 외국인과 결혼한 이웃 여성의 삶을 보고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지면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국제 결혼은 선택의 대상이 되고 성공적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Chae & Hong, 2007; Kim, 2007; Lee & Lee, 2009; Yoon & Lee, 201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한국인 남성의 외적인 조건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외국인 여성의 자국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은 국가의 출신이라는 점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최대 20세 가까운 연령 차이를 감수하면서도 배우자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평소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 국적에 집착하기보다는 연령과 초혼 여부를 보다 중시하여 차라리 한국인 재혼녀보다는 외국인 초혼녀가 낫다는 식으로 사고를 달리 하거나 기대 수준을 낮추어 국제 결혼이 주는 부정적 의미를 상쇄하는 등 이른바 사회교환론이 적용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으로 시작된 국제 결혼은 수적인 증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한 부부들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어 선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형태의 혼인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결혼 진행 중 경험에 대해 평소 시어머니들은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일념 하나로 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추종하거나 아예 시어머니가 주도하여 관여하기도 하였다. 대개 결혼 소개 업체를 통해 결혼하였는데 복잡한 서류 절차 등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대행하여 수고를 덜어 주기는 하였지만 비용이 제대로 신부집에 전달되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국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아들이 모든 절차를 혼자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시어머니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중 직접 현지에 방문한 시어머니도 있어 인류지대사인 만큼 국제 결혼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외에도 신부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고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다시 하는 등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도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외국인 며느리는 원부모와 헤어져야 하지만 현재 자신의 생활 여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위의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하면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국제 결혼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결혼 소개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을 뿐더러 성격적인 부분은 직접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통한 결혼을 전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외국인 여성은 수많은 후보자 중 한국인 남성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본인의 의사나 주장을 전달할 수 없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이처럼 배우자 결정외에 결혼 후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도 남편이 미리 알려 준 경우도 있었지만 통보일 뿐 배우자의 의견을 구하려는 절차는 아니었다. 이는 Lee and Lee(200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였다. 또한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어 한국으로 오기전까지는 결혼이 다 된 것인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동등하지 않은 결혼 과정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결혼 후 경험에 대해 시어머니의 결혼 전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도, 많지도 않았지만 결혼 후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Jeong & Lee, 2010; Yoon & Lee, 2010)와 일치하였다. 특이한 점은 시어머니들이 자주 표현했던 어법으로 '~해 줘서'의 사용이었는데 '한국에 와 줘서', '결혼해 줘서', '살아 줘서'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고부 관계는 시어머니가 상위이며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존재이나 다문화 가족내에서는 위치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몸이 심하게 불편하여 봉양을 받아야 하는 일부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생활하면서 식사 준비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여 대접받는 시어머니의 위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물론 생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의 의견과 주장이 우선되고 관철되지만

그 이면에는 며느리를 평생 독신으로 살 수도 있었을 아들을 구제해 준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이 기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oo(200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바꿀 의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는 며느리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출신이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맞추어 가기 보다는 며느리들이 자신과 한국의 상황에 맞추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따라서 혼인이 결정되고 시집은 후에도 이전에 베트남은 월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사극 등에서 본 연유로 인해 일부 익숙해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며느리 나라에 대해 공부하거나 알고 싶은 의지는 없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노년기의 특징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oon and Lee(2010)의 연구에서처럼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의 일상 생활 적응에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느끼는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경험하였지만 시어머니가 너그럽게 잘 대해 준다는 사실을 이들도 잘 알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큰 거부감을 없었다. 다만 문화 차이 뿐 아니라 세대 차이도 존재하여 옷차림이나 외양면에서 시어머니의 취향과 자신의 취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대부분 이들의 연령이 20대 초반이어서 시어머니에게는 손녀뻘되는 것이므로 한국인끼리 느끼는 신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괴리감과도 유사한 맥락일 것이다.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았으나 며느리 원가족의 현지 형편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적 여유보다 정서적인 이해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며느리는 결혼 전 기대와 달리 현재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신이 가장으로서 일해야 하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혼 전 기대 충족 수준과 경제적 여건, 부부 관계 등이 생활 적응에 중요하였다는 Jeong and Han(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다. 이 참여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며느리들은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높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보였다. 이는 좋은 시부모와 남편을 만난 덕분이기도 하고 주변의 이웃이나 외국인 친구들과 비교해 봐도 자신의 삶이 그들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현재 동거하는 고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체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 생활을 비롯한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국제 결혼의 특성상 애정이 수반되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조건에 부합하여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들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외국인 며느리는 사랑없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으며 중개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과정을 경험해 본 결과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을 권유하였다. 결국 이들에게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은 '각자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얻어진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 적응에 미치는 시어머니의 역할이다. 일상적으로 나타나지는 한국인간 고부 갈등이 다문화 가족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한국 문화의 안내자, 며느리의 조력자 및 옹호자로서 담당하였다. 며느리들도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이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며 많은 도움을 주고 배려해 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정하였다. 또한 자녀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도움은 보다 요긴하여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므로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이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며느리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전문한 바와 같이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원만한 고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며느리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만 시어머니를 비롯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소수여서 서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교육 내용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셋째, 결혼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담당 기관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이용한 소개 업체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일부이기는 하나 비인간적인 배우자 선택 과정이나 부정확한 배우자 관련 정보 제공 등 결혼 소개 업체의 악행들이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결혼 당사자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중개 업체에 대한 개선택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질적 관리와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일 수 있어 다문화 가족 관련 당사자는 물론 외국인 여성을 매매혼의 대상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도 특히 동남아 출신의 유색 인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종 차별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고 구성원들이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동거하는 고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간혹 경제적 부분과 같이 시어머니 자신이 제공한 지원의 양과 생활상의 해석에 있어 며느리가 지각한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어머니의 경험과 며느리의 경험이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양자의 균형잡힌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단, 현재 동거하는 고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가족 해체를 경험하였거나 불행한 가족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하지만 바람직한 다문화 가족의 모습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REFERENCE

- Chae, O. & Hong, D.(2007). Case study for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to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1), 61-73.
- Colaizzi, F. E.(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review it. In R. S. King(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oo, C.(2007). Study on the interracial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19-360.
- Hong, D. & Chae, O.(2008). Family life and conflicts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5), 729-741.
- Jeong, G. & Han, G.(2009).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2(2), 87-114.
- Jeong, S. & Lee, H.(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mothers-in-law who have foreign daughters-in-law - focused on Seoul city residents -.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9(8), 29-54.
- Jeong, S., Park, H., & Lee, H.(2010). Perceived relationships of parents-in-law with foreign daughters-in-law and factors related to their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8(4), 5-36.

- Kim, J.(2009). International marriage of Filipina: Their perception and marriage process.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2(2), 1-27.
- Kim, M.(2007). The changing face of families in Korean society and Filipina wives in rural areas. *Feminism Review*, 7(2), 213-248.
- Lee, J. & Lee, M.(2009). Married female immigrants'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in-laws and their beliefs about filial responsibility for elderly caregiving. *Elder Welfare Review*, Winter(46), 127-158.
- Lee, K. & Cho, B.(1994). The effects of mate selection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urban couples: A social exchange view.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2), 129-143.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7).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ettlement in agricultural research. Seoul: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5).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searc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tatistics(2011). Multicultural family population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 Yoo, G. & Jeong, H.(2007). Family relationship. Seoul: Shinjeong.
- Yoon, M. & Lee, H.(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other-laws with foreign-daughter-in-laws in rural area. *Agricultural Society*, 20(2), 191-232.

- 접수일 : 2012년 07월 08일
- 심사일 : 2012년 08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21일